

◇ 선거를 통한 변혁 가능성 진단을 위한 기획 시리즈 <2> - 선진자본국가의 선거

정권욕에 악용되는 선거전략



I. 선거에 대한 문제제기

최근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련의 선거들은 갈수록 일회성의 의회선거와 대립과 조화로 바꾸어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원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국민은 원칙적으로 선거라는 절차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우선 다양한 개인사의 자유로운 표출과 민주적인 반영에 의한 다양한 의사소통 통로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민주적 선거의 요건은 진정한 자기표현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자주적 각성과 국민사의 반영을 위한 합리적인 선거제도의 확립이라고 하겠다. 유권자들이 부당한 유혹을 물리치고 자주적 판단으로 자유로운 투표권을 행사하려고 해도 선거제도가 비합리적이나 부당한 유권자의 의사를 올바르게 수렴할 수 없게 된다. 구체적으로 국회선거에서 각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곧 득표율로 되며 의석률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 될 것이다.

선거제도를 규정하는 선거법은 하나의 정치적 규칙(political game rule)으로, 규칙의 기술적 조작에 따라 특정 정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선거제도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제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민주적 공명선거라는 것이 형식적 의식이나 명목상의 규칙이 되거나, 지배정치를 은폐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지배논리의 이데올로기적 정당화수단이 될 가능성은 없는가? 선거는 '선거'라는 방법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서 선출의 의미 뿐만 아니라 지배의 권한을 정당화시켜주는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형식상 민주적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선거는 '선출'의 기능과 '승인'이나 '정당화'의 기능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특히 권위주의적 체제에서는 후자의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I. 선거제도와 정당화 기능

민주정치의 오랜 전통을 지닌 영국의 경우 불법 부정선거는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꾸준한 국민적 노력에 의해 탈피할 수 있었다. 영국의 선거는 우선 경쟁적이지만 쉽게 과열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당제도에 바탕을 둔 소선거구제를 취하고 있어 제3당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사표도 많이 나

타난다. 그러나 내각책임제에 따른 다수당의 집권방식을 갖고있어 비교적 소수의 투표상황 변화에 의해서도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되어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보수-진보간의 주기적인 정권교체를 해왔다. 통계를 보면 보통 1%의 전국적 정당지지율 변동(swing)이 의회내의 정당 의석수 변화에 미치는 폭은 12석 정도(약 18%)가 된다. 따라서 650석의 하원의석 중에서 보수당이 제10당인 노동당보다 70석정도 앞선 의석수를 갖고 집권하고 있을 경우, 다음 총선 결과 보수당이 3% 하락된 전국지지율을 얻는다면 보수당은 약 36석을 잃고 노동당은 36석을 더 얻게 되어 노동당이 원내 다수당이 되어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영국은 소수의 '스윙'이란 선거와 정당구조로 '선거변혁'을 가능케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 더불어 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이 이를 굳건히 받쳐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의 맨체스터대학의 존스교수는 정치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정당과 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탄생하느냐, 아니면 권력을 찬탈한 소수집단이 독점적으로 속성 정치인을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 판별이 난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4월 10일 총선거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보수-진보세력간의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3-4%의 전국지지율 '스윙'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집권 보수당이 예상을 뒤엎고 과반수(326석)를 10석 넘는 의석을 확보하는 승리를 거두고 현대적 의미의 영국의 회가 정착된 1830년대 이후 처음 있는 47 연속 집권을 기록했다. 한편 노동당은 271석, 그리고 당초 불종을 예상했던 자유민주당은 의회내 20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보수당이 영국정치사의 신기원을 세우며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기술적 요인은 집권당의 성과나 정책결과와 상관없이 나타난 9.2%의 실업률이 상징하는 만성적 불경기를 선거정점화시키지 않고 노동당의 집권 위험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한 선거전략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동당이 집권을 위해 온건한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집권하면 주요산업의 국유화 조치나 일방적 핵무기 폐기, 과도한 세금인상 등 급진적인 시도를 시행할 것이라는 경고와 우려를 보수당의 주요선거전략으로 설정한 것이다. 결국 잠재적 보수정권이 강한 부동표 계층이 노동당을 지지하는 것을 저지하고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보수당의 선거운동이 상대방의 비방에 충격을 맞춘 이른바 '부정적 선거운동'이라는 비판도 적지않다.

보수당이 승리한 또하나의 기술적 요인은 영국 국민들의 뿌리깊은 양당제 선호의식에 근거하여 제3당으로의 지지유출을 최대한

중을 느끼고 있지만 경제문제를 다루는데는 그래도 노동당보다 보수당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를 사실로서 정당화시키게 되었다. 현재 영국의 경제는 1990년대 이후 최저치 침체상태에 빠져 있으며, 영국의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은 부의 배분보다는 경쟁력 강화가 더욱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당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보수지배세력들은 평가한다. 이러한 조작적 평가는 본래보다는 성장을 우선으로 하는 보수당의 정책에 또

서 이번 영국의 총선은 '선거'를 통한 '지배세력의 변혁'이라는 의미에서 다소 퇴색되었으며, 오직 영국의 보수-진보간의 주기적인 정권교체의 전통에 '변혁적인' 결과만을 산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II. 선진국 선거변혁의 구조적 제약

지난 87년 영국 총선에서 제3당인 자유당은 22.5%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제2당인 노동당에 30.8%에 근접하는 전국적 지지를 얻었으나 소선거구제의 장벽에 걸려 실제 의석 수는 650석의 3%도 못



◇ 선진국 선거변혁의 구조적 제약은 현안 정책보다 선거전략과 세계정세에 좌우되고 있다

선거, 지배 논리 정당성 부여하는 이데올로기적 수단되기도 유럽 등 이념 초월한 현실적 대중정치 요구로 제3당 호응세

막는 상대방 경제적 선거운동의 결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보수당이 선거과정에서 고전한 것은 기존 지지계층의 상당수가 보수당의 장기집권 결과 나타난 경기침체에 실망하면서 노동당에 지지할 수 없는 계층이 상당히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보수당 지지세력들이 제3당인 자유민주당으로 기를 가능성이 농후하였기에 보수당은 이들을 겨냥하여 제3당의 득세는 양당제의 붕괴를 초래하며 강력하고 책임있는 정부구성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선거운동의 비방, 경제적 논리를 계속 유지하며 막판까지 이들의 마음을 돌려놓은 것이다. 이 때문에 메이저 총리는 자민당을 노동당이 보낸 '트로이의 목마'라고 비난할 정도로 날카로운 선전전까지 사용하며 보수당 지배세력의 유지에 노력하였다.

어쨌든 이러한 영국 총선에서의 보수당의 승리는 영국 국민 다수가 보수당의 장기집권에 다소 염

미치는 17석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자민당은 기존 양당제 지배구조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미미한 존재로 밖에 남을 수 없는 구조적 제약들이 있다. 이번 4월 총선에서도 자민당은 총 의석중 3%정도인 20석을 얻었지만 실제 전국지지율은 이것에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제3당에 대한 지지율이 20% 선에 이르렀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국민들 사이에 양당제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수준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특히 자민당의 지지계층이 고령화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새로운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세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변혁적의사는 의회내에서 3%정도 밖에 인정되지 않는 의석수를 갖고 다수결원리에 따른 정책결정에 미미한 권력에 미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성이 있다.

프랑스 경우에도 현행 지방선거

제도에 있어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어 녹색당 등 군소 저항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이 가능하지만, 내선 볼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소선거구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군소 저항정당들의 하원 및 상원진출을 사실상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제도의 개혁은 프랑스 집권 사회당으로 하여금 급진적인 환경보호론자들을 '유인'하는 '미끼'로서 선거제도의 개정 문제를 논의하게 하고있다. 그래서 지방선거 후에 지방의회에서 간선으로 이루어지는 도지사 및 시장선출에서 환경주의자와 연합하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야당연합도 전략상의 필요 때문에 녹색당과의 제휴를 염두에 둔 선거제도의 개혁을 논의하고 있어 환경주의의 정당화 추구를 높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당 집권 말기의 상징적 정후들이며 프랑스 정국의 변화방향을 예견해 볼 수 있으나, '선거변혁'이라 부를 만큼 사회기자의 변동들

권해는 사회당이 급진 3월 지방선거에서 18% 지지밖에 얻지 못하는 참패를 하였고, 급진 4월 이태리 총선에서도 좌파민주당('공산당'에서 91년 1월 개칭, 소수파는 '공산당' 명칭 유지)을 비롯하여 좌파정당들이 전반적인 지지의 하락세를 보였다. 87년 총선에서 이태리 공산당은 26.6%의 지지를 얻어 의회에서 177석을 차지한 제1당이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15% 정도의 지지만 얻게되었다. 더불어 87년 34.3%를 얻은 제1당 '기독교 민주당' 역시 30% 내외의 지지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영국으로까지 이어져 지난 9월 총선에서 집권당의 만성적인 경기침체와 주민세 도입 등의 실정이 총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을 뒤엎고 집권 보수당이 재집권을 위한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선거는 국회의원을 새로 선출한다는 형식적인 의미를 떠나서 매우 역사적인 중요한 선거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즉 국내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들이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그보다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 공산권의 와해 뒤에 치러지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서유럽의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변수들이 어떻게 자리잡으며 정치적 자각변동을 이룰 것인가에 보다 큰 관심이 모아진다. 이같은 상황 변화는 유럽사회의 정세구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에 현상유지적인 기존 세력들은 선거제도의 개편으로 맞서며 선거방식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려하고 있으며 현상타파적인 도전세력의 득세를 구조적으로 막아보려 하고 있다.

한편, 선거결과에 나타난 유럽 사회주의 이념의 퇴조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사회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유로communism의 퇴조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내의 개혁을

추장하는 사회민주주의의 퇴조로까지 이어지는 전반적인 이념의 변혁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주의의 종국적인 소련의 붕괴와 동유럽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정권의 몰락이라는 '경험적 맑스-레닌주의'의 실패를 목격한 서유럽 국민들에게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전반적인 매력의 상실을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영향은 공산권의 몰락 이전에도 유로communism을 채택함으로써 계급혁명이 아니라 의회 정치를 통한 노동계급의 집권을 현실로 나타냈다. 지난해 '사회복지의 낙원'을 이룩하며 58년간 집권을 해오던 노르웨이에서 3%정도 밖에 인정되지 않는 의석수를 갖고 다수결원리에 따른 정책결정에 미미한 권력에 미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성이 있다.

IV. 공산주의 붕괴와 선거변혁

소련의 붕괴와 동유럽의 민주화는 세계사적 격변을 야기시켰고 이 파장은 서유럽 선진국가들의 사회주의적 이념에도 큰 영향을 미쳐 서유럽 각국의 선거결과에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회복지의 낙원'을 이룩하며 58년간 집권을 해오던 노르웨이에서 3%정도 밖에 인정되지 않는 의석수를 갖고 다수결원리에 따른 정책결정에 미미한 권력에 미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성이 있다.

소련의 붕괴와 동유럽의 민주화는 세계사적 격변을 야기시켰고 이 파장은 서유럽 선진국가들의 사회주의적 이념에도 큰 영향을 미쳐 서유럽 각국의 선거결과에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회복지의 낙원'을 이룩하며 58년간 집권을 해오던 노르웨이에서 3%정도 밖에 인정되지 않는 의석수를 갖고 다수결원리에 따른 정책결정에 미미한 권력에 미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성이 있다.

석철진
(본고 정경대 감사·정치학)

“첨단기술의 내일을 여는것은 젊은이의 몫입니다”

과학기술원에서 분산데이터 시스템을 전공하고 있는 황호웅군이 삼성종합기술원의 표삼수 연구위원을 찾아가 우리 과학기술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과학기술처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도 없을 겁니다. 근대에 들어 발표된 물리학의 소립자 AXION 이론이나 끈기 생명유전 공학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라고 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정도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하기에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넘어야 할 고비가 바로 최고가 되기 직전 마지막 고비가 아닐까 합니다. 삼성종합기술원의 표삼수 연구위원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마지막 목표가 바로 세계 최고라고 말한다.

“1위와 2위의 차이는 숫자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그 차이가 그렇게 좁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컴퓨터 분야에 있어서는 한제품의 싸이클이 6개월 남짓 밖에 안되니까 2위까지 뛰어 올라온 식대로 선진국의 기술을 배우고 거기서 출발하려는 태도로는 끝내 1위와 2위의 거리를 좁힐 수 없습니다. 그러나 1위와 2위가 똑같은 제품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국제시장에서 얻는 이익은 약 30~40%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말 2위에만 머무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일반사람들은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는 기술의 격차라는 것이 아직은 과학을 배우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피부로 느껴 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1위라는 것은 너무 먼 자리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생각도 그렇게 1위가 되기 힘든 것이라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연구개발된 공작이나 시제품이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 표삼수
(삼성종합기술원 정보시스템 연구소 연구1팀 연구위원)

하지만 과학기술은 사람입니다. 바로 사람이 있는 곳에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기술의 모방에서 한단계 뛰어넘어 소비자가 원하는 새로운 기술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우수한 사람들이 곧 첨단기술 자체이고 우리 과학기술의 내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과학기술의 내일을 열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를 1위로 향해 열어가 줄 젊은이의 대열에 끼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쯤 하게된다. 그러면 큰 사명감에서라기 보다는

기술 선진대열에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땅의 젊은이로서, 과학기술도로서 당연히 지닐만한 생애이기 때문이다.

삼성은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젊은이와 만났고 있습니다.

● 황호웅
(과학기술원 석사과정 분산데이터시스템 전공)

인재와 첨단기술의



세기로 꿈을 파는 젊음

